

미래를 향해 시련의 시대를 - 응시하자

인향고등학교 교장 정경수



젊음과 패기가 넘쳐흐르고 신선함이 금세 가슴
벅찬 환호로 터질 것 같습니다. 인향고등학교
개교 30년을 즈음하여 여기는 전 인향인을 하
나로 만드는 학교 문화의 활화산입니다. 젊음의
열기와 자신감이 충만한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
운 어울림의 한마당입니다. 또한 새로운 문화를
선도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로서 바쁜 학교생활

에서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드높이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
니다. 매일매일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지나는 법입니다. 뭔가를 해보
자고 말해 보더라도 말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. 매일매일 조금씩
운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를 단련시키는 것, 매일 한 단계씩 전진해
나가는 것입니다. 일을 벌인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. 태평양을 횡단
할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
부수적인 것입니다. 그것이 주체가 되는 이상, 현대는 현실적입니다.
말하자면 현대는 젊은이가 진실로 젊은이다운 데까지 사는 한 보람
이 있는 시대입니다. 현대는 분명 시련의 시대입니다. 이 시대를 젊
은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진실로 젊은이로서의 가치가 있는
젊은이입니다. 인간을 어둡고 비뚤어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
시대에 지금 스스로 명랑함을 유지함으로써 시대에 도전해야 한다고
생각합니다. 비행이라는 부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시대가 어둡고 사
람들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사회라면 자신을 명랑하게 유지함으
로써 사회에 도전장을 내던지는 것입니다.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도
전의 의식으로 때때로 걷는 것만으로도 휘청거리고 쓰러질 듯 마음
의 긴장을 느낄 것입니다.

Next ▶

미래를 향해 시련의 시대를 - 응시하자

인향고등학교 교장 정경수

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.

그리고 우리의 현재란 미래로부터 지탱되고 있습니다.

미래로부터의 지주를 잃은 현재는 붕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현재는 현재만으로 잘라 생각하면 허무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.

현재는 현재를 초월하는 미래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
아니겠습니까?

그 미래의 목적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현재는 의미를 지니게
됩니다.

다시 한 번 인향고등학교 개교 30년을 축하하면서 달려온
30년의 저력으로 다함께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
나가길 기원합니다.



인향고등학교 개교 30주년
30th anniversary